

강원도의 국제화정책과 환동해경제권에의 대응**

(A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and East Sea Rim Economy
in Kangwon Do (Korea))

沈 宗 燮*
(Jong-seop, Shim)

논문접수일 : 96. 10

게재확정일 : 96. 12

목 차

I. 序 論

II. 강원도의 국제화 여건

III. 강원도의 국제화 정책

IV. 강원도의 환동해(경제)권 교류·협력 전략

V.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세계경제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최소 경제단위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계화와 地方
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설적 현상을 말한다. John Naisbitt는 그의 저서
“Global Paradox”에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작은 지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SEEC) 회장

** 이 논문은 1996년 10월 28일 일본 도야마대학경제학부와 일본해경제연구소가 주최한 「日本
海沿岸地域の國際化政策の現狀と課題」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장하고, 이어서 정보통신혁명으로 세계경제는 지구촌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역시 더욱 심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가속으로 2000년대의 모든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구속력을 잃고, 지역공동체들이 政治的 독립을 얻어 1,000개 이상의 국가가 출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각 지방의 자치단체는 과거의 수동적인 정책집행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능동적으로 기획과 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WTO의 출범과 開放化 國際化의 추세와 더불어, 江原道도 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강원의 비전21”(長期發展計劃)을 1996년 10월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속에 “국제화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국제화의 기반확충, 활발한 국제통상, 관광EXPO, 환동해 교류활성화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중점은 “환동해 협력”에 치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환동해권은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을 말한다. 이 환동해권은 전 아세아 육지면적의 약 20%를 점하고 있으며, 약 2억 9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 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환동해 교류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각국 모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협력문제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화는 지방단위가 주체가되는 과제 임을 시사하고 있다.

강원도는 1994년 7월 4일 강원도국제화의 핵심과제로 “환동해권 카르텔구상”(KARTELL: Kanfondo's Active Role Towards East-sea rim's Local Leader)을 발표하고, 1994년 11월 8일 속초에서 ‘環東海圈 4個國 地方政府 知事·省長會議’(러시아의 연해주, 中國의 吉林省, 日本의 돗토리현, 韓國의 江原道)를 개최하여, 이들 지역간의 인적·물적교류를 통한 공동번영을 다짐한 바 있다. 그 후 지사·성장회의는 4개국을 순회하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의 국제화 여건, 강원도의 국제화 정책, 강원도의 환동해권 교류·협력 실태와 향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강원도의 국제화 여건

1. 인구 및 지역총생산

강원도는 인구 153만 1천명(1994년)으로 전국대비 3.4%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이다. 강원도의 지역총생산(GRP)은 7조203십억원으로 전국대비 2.7%이고, 1인당 GRP규모는 487만 6천원(1993년)으로 전국 9개도 중 최하위이다.

<표 II-1> 지역총생산과 1인당GRP(1993년)

| | GRP(10억원) | 1인당GRP(천원) |
|-------|-----------------|------------|
| 전 국 | 267,515.4(100%) | 6,321.5 |
| 강 원 도 | 7,203 (2.7%) | 4,876 |

자료: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1995.

2. 실물경제부문

(1) 산업구조

1993년 취업자수를 보면 농수산업 종사자비율이 27.5%로 전국 평균 14.7%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반면 광공업 종사자는 전국의 24.4%에 비해 월등히 낮은 13.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조업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과 비교해 눈에 띄는 다른 추세는 전국적으로는 농수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광공업,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 강원도는 농수산업,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광공업 비중이 낮아지는 데 문제가 있다.

생산구조면에서 농수산업의 비중이 1993년 현재 11.6%로 전국의 7.1%를 크게 웃돌고 있다. 광공업에서 강원도는 광업의 비중이 3.7%로 전국의 0.3%와 대조를 이룬다.

<표 II-2> 산업구조

(단위: %)

| | 전국 | | 강원도 | |
|-------------------|----------------|----------------|----------------|----------------|
| | 1985 | 1993 | 1985 | 1993 |
| 농림수산업 | 12.5 | 7.1 | 20.6 | 11.6 |
| 광공업 (제조업) | 30.4 (29.3) | 27.4 (27.1) | 28.8 (13.6) | 20.8 (17.1) |
|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업 | 10.6 | 13.3 | 13.0 | 21 |
| 서비스업, 기타 | 46.5 | 52.2 | 37.6 | 46.6 |

자료: 통계청, 「한국연감」, 1986, 1993.
 ----,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1995.
 강원도청, 「강원통계」, 1994.

(2) 공업구조 및 기반시설

강원도의 제조업체 수는 1993년 현재 1,304개로 전국대비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가가치액은 1조 7,200억 원으로 전국의 1,086조 5,220억 원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종업원 수도 3만 7,463명으로 전국대비 1.3%에 불과하다. 강원도 인구비율이 전국의 3.4%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위치가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강원도의 특화 지수가 1이 넘는 제조업은 음식료품, 담배, 비금속 광물, 사무 용품, 의료 기기 정도이다. 이 중 담배의 특화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산업구조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그 밖의 산업기반시설면에서는 도로포장률이 전국 최하위이고 기타 산업기반시설도 열악한 상태이다. 도내 항만 중 컨테이너항이 없는 상황이고 동서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 공항으로는 강릉과 속초 2개의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이 없어 외국과의 전세기만 특별한 경우 오가고 있다. 항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공항의 확충과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신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강원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의 강원도내 직접투자

① 해외투자

강원도 기업의 해외투자규모는 한라시멘트와 동원의 석유사업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투자이다. 1994년 9월말 현재 허가 기준으로 49건에 6억 4,637만 5천달러, 투자기준으로 35건에 2억 9,378만 5천달러로서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0.7%와 0.45%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로는 광업(석유)이 1,976만 달러, 제조업(시멘트)이 3,722만 달러로 주종

을 이루고 있다.

- 지역별로는 중국이 16건, 미국이 14건이나, 금액 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160만 달러, 아르헨티나가 1,975만 달러로 이들 양국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② 외국인의 직접투자

강원도내 진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1995년 4월 현재 16개 업체에 7개국 해외투자자가 투자를 했다. 액수로는 3,775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경공업 및 서비스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 투자분야는 광업, 화공, 전기, 전자산업, 숙박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관광업에 치중되어 있고 투자국은 7개국 16개업체 중 일본의 투자자가 10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 투자금액은 업체당 평균 236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Ⅲ. 강원도의 국제화 정책

1. 국제화 기반확충

(1) 지역사회의 국제화 추진

① 국제화를 담당할 인재의 육성

국제화의 관건은 '사람의 국제화'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을 알고 향토(국내)에 외국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향토를 알고 외국에 향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이 강원도의 국제화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

사업내용은, 공무원의 어학훈련과 국제관계 의전 및 국제통상 등에 관한 전문가 육성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공무원의 어학훈련은 공무원교육원의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매도시와의 교환근무제, 장기파견제의 지속과 확대를 도모한다. 그리고 국제관계 의전 및 예정, 법령,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가 육성을 위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신설, KOTRA해외무역사무소에 해외파견 등을 추진한다.

② 외국인과의 친숙해지는 기회확충

외국인과 친숙해지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국제교류를 알선·지원하는 민간부문 국제네트워크를 추진함으로써, 관광네트워크 + 통상네트워크 +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도단위 각종 행사에 해외 자매도를 초

청,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 부문의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경제단체, 스키장, 골프장, 호텔 등 관광업계, 연극협회, 미술협회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EXPO와 춘천 국제인형극제 등에 해외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강원도의 노인과 청소년을 1997년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산인·꿈의 항구박람회'에 참가시키는 등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1998년 월드컵 스키대회와 1999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와 때를 같이하여 교류지역 외국인을 초청한다.

③ 외국인이 살기 편한 환경조성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로 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관광지과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을 설치해 나간다. 도로 이정표, 간판 등의 제작 표기는 국제권례에 준하는 규격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제작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의 강원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멀티비전, 각종홍보지의 외국어판 제작을 추진한다. 그리고 도내 주요관광지와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한 유인물 가판대 설치 등 정보제공기회를 늘려 나간다.

④ 국제화의 장기비전 제시

21세기는 획일화된 논리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지방의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 하에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 중점 추진 대상으로는, 도민의 의식 개혁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 환동해 경제권 주도를 위한 대응방안 강구,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지속 추진, 환동해권 민간단체간 교류와 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매년 도와 각 시군에서는 국제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국제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한다.

(2) 우호교류의 추진

①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의 추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국제교류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제네트워크로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의 연속성을 위한 자매·우호체제를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여성부문 등 민간부문에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국의 문물, 가치관, 규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강원도내의 시립교향악단과 일본의 부산관현악단과 같은 외국의 자매자치단체와 교환공연과 청소년 상호방문(홈스테이)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관광박람회, '98월드스키대회, '99동계아시안게임 등의 대규모 국제이벤트행사에 자매 자치단체의 문학가, 예술단체를 초청한다. 아울러 중국 요령성, 일본 도야마, 러시아 연해주와 추진하는 동북아 4지역체육대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체육교류 협정과 같은 케이스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

② 자매·우호 제휴의 추진

현재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중인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미국 콜로라도주,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범위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한다.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강원도와 교류여건이 비슷하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 자매교류를 추진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국제교류가 미흡한 시군에 대한 지도·알선을 통해, 시단위는 2개지역 이상, 군단위는 1개 지역 이상의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현재의 교류관계를 문화, 예술, 통상 등 여러분야로 확대하고, 학교간 교류, 민간단체간 교류, 시군간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국가를 유럽,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한다.

(3) 국제협력 추진

① 연수협력체제의 정비

의료·농업분야 등의 외국인 국제연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및 각종 집기를 보충하고, 외국에서 오는 파견 연수생을 위한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996년의 경우, 외국에서 강원도에 파견오는 공무원은 7명으로서, 그 내용은 일본 돗토리현 연수생 1명, 중국 길림성 연수생 1명, 농업·수산·축산업 단기연수생(1개월) 3명, 환경분야 단기연수(1개월) 2명으로 되어 있다. 이들 연수생의 숙박시설은 일반 주택 또는 숙박업 시설을 임차활용하고, 기본적 생활집기는 강원도에서 구입 제공하고 있다.

② 유학·연수에의 협력

강원도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연수와 유학을 과감히 추진하며, 아울러 외국과의 상호교환파견을 장려하여 국제화의 효과를 확대한다.

유학 및 연수에 있어서는 지원분야와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외

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강원도내의 정보·기술수준을 향상시킬 분야,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도입하여 강원도내 문화 및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분야, 선진행정을 도입하여 강원도내 행정을 발전시킬 분야, 외국과의 경제·무역거래를 위한 투자 환경 파악을 위한 분야에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한다.

한편 외국인들의 강원도내 영입을 통하여, 강원도의 유망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수집하여 강원도의 사회제도적 미비점을 파악 개선한다.

2. 활발한 국제통상 추진

(1) 통상체제 정비

① 통상업무의 체계화

강원도의 통상업무는 주로 공산품 중심의 수출지원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지원 업무를 추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통상업무 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강원도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에 공산품과 농산품을 함께 보내어 다양한 해외시장을 개척 하며, 고려무역의 해외 매장에 강원도실을 신설 공산품과 농수산물을 함께 전시한다.

② 국제통상조직 보강

영세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애로창구를 운영하며, 새로운 통상정책 개발시에는 프로젝트팀제를 운영한다.

통상협력과의 전문직인력을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애로창구를 담당케한다. 특히 수출입 서식작성, 통역, 번역 등의 업무를 지도한다. 그리고 수출애로창구에 접수된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직접처리 가능한 일이라면 즉석에서 처리해주는 '수출 신문고'(신문고)¹⁾를 운영한다.

(2) 지역산업 육성에 따른 통상전략 추진

① 무역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원도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실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리고 KOTRA와 협력관계를 맺어 강

1)궁궐의 앞에 달아두고 백성들이 원통한 일을 하소연 할 때 치게 하던 큰 북

원도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용의 35% 정도를 KOTRA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만든다. 그 외에도 강원도내 영세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월례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며, 강원도내 기업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리로 작성해주어 전자매체를 통한 무역개발을 촉진한다.

②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와 기능강화

국내외의 기업이 강원도내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들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국내의 대기업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의 여의도나 시청앞 또는 무역센터 등의 장소에 '기업유치강원도사무소'(일명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 배부하고, 강원도 연고의 대기업을 국내 주재 해외기업 명단을 파악하여 그중 유망기업을 방문 강원도내에의 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③ 국제거점도시 육성

국제화와 지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강원도는 환동해권 교류·협력을 위한 거점도시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의 특정도시를 지정,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테마파크의 조성, 선착장, 해양박물관의 조성 등 해양관광을 겸한 환동해국제거점도시를 조성하여, 향후 동해안을 통한 대북운송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 거점도시는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국제도시로 육성한다.

(3) 지방정부의 기업가형 경영

① 경영마인드 교육프로그램 구축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행정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되기를 요구받고 있으며, 행정조직의 국제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공무원의 경영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전공무원이 기업가적 사고방식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개혁을 단행하였다.

② 해외정보 서비스기능 강화

강원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고, 필요한 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 강원도 명예협력관을 위촉하고 긴밀한 연락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정보의 수집·배포와 광고페이지

신설, 해외연락사무소와의 긴밀한 정보교환체제 구축, 해외(일본)나 서울에 강원도 전시관 운영, 서울의 관공서와 외국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강원도에 공급한다.

③ 전문공무원 육성 교육 프로그램 구축

국제감각과 경영마인드를 지닌 전문공무원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실무와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관련 해외연수나 시찰에 있어서 전문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그들의 국제감각과 해외현장감을 익히도록한다.

3. 관광 EXPO계획 추진

(1) 국제관광박람회 추진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관광한국을 대표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스포츠국제대회 등의 대규모 이벤트 유치, 획기적인 Infla Project(동서고속철도, 국제공항)가 가시화되어 강원도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1세기와 국제회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와 관련된 발전적 현상들로부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관광박람회'의 개최는 강원관광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사업개요

- 주 관 - 강원도(후원: 재정경제원, 내무부, 문체부, 건교부, 한국관광공사)
- 주 제 - '인간과 자연 그리고 21C의 삶' (Human, Nature and 21C Sound Life)
- 부 제 - '만남과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 (Seeing, Communication, and Explore)
- 기 간 - 50일간 개최
- 개최지 - 주개최지: 속초시 교동 청호동 청초호매립지(잠정)
부개최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도내일원
- 참 가 - 국내외 지방정부(46개기관) 및 국내외 관광업체, 민간업체(480개)

(3) 사업내용

- 참가국가의 지방정부 및 관광업체, 민간단체들의 관광 전시·홍보관 설치
- 박람회 개최이념의 직접적 표현과 전달 및 살아 숨쉬는 활기찬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변극장(302평), 마리나·클럽하우스 등의 수변시설(293평), Event Plaza(500평)을 시설하여 대회기간동안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
- 이밖에 판매시설(204평), 운영시설(666평), 기타시설(274평)을 설치.

IV. 강원도의 환동해권 교류·협력 전략

1. 환동해 태동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

(1) 현황과 과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정치시스템은 동서간의 대립으로부터 제위주의 정책협조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민주화 추세, 시장경제 지향 추세와 북미·유럽·아시아 경제권의 3극구조가 진행되면서 과거 침묵의 바다였던 동해(일본해) 역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환동해교류의 가능성을 다방면에서 고려해 볼 때 강원도는 역사적·지리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환동해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강원도는 향후 환동해 교류의 기반과 기능을 대폭 정비하고 확충해야 할 필요가 크다. 특히 강원도에 해상, 육로, 항공의 복합운송거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기지의 확보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물류기지가 형성될 경우, 강원도는 수도권을 배후로 부산보다 싼 물류비용의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안은 관광, 레저, 무역기지 외에도 대북운송의 거점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환동해권에 대한 주변국의 동향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주변국의 환동해정책

| 국가 | 정책명 | 내용 |
|-----|-------------|---|
| 일본 | 환일본해 경제권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종식 후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 공항, 도로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의 시장을 겨냥해 서해안을 거점지역화 하였다. · 도야마와 니가타현을 선두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역량을 증대하고, 환일본해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활동을 1970년대부터 축적해왔다. · 최근 환일본해교류, 서일본해협의회가 9개 현을 중심으로 창설된 바 있으며,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돗토리현은 사카미나토항을 FAZ(free access zone: 수입촉진지대)로 지정하고 국제공항유치, 1997년의 EXPO 유치 등 환일본해의 물류,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
| 중국 |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로의 출어권 회복을 위해 1990년 7월 중국 길림성에서 황금의 3가지대 구상이 발표된 뒤 UNDP주관으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논의중이다. · UNDP계획은 다자간 경제협력이라 국가간 이견이 많으나 길림성의 독자계획으로 훈춘개발 프로젝트와 방천항 건설이 추진중이다. |
| 러시아 | 대블라디보스톡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블라대보스톡계획(GVFEZ)을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나홋가, 핫산지구를 개발하여 수출·산업·관광위락지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 재정상의 문제와 러시아 국내경기의 악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 연해주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다. |
| 북한 | 나진·선봉 지구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선봉지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 나서고 있으며, · 나진-속초를 잇는 페리호 운행을 추진중에 있다. |

<표VI-1>에서 본 바와 같이 주변국의 환동해교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강원도의 독자적 환동해교류는 여러가지 면에서 잇점이 보이나, 중앙정부와 강원도민의 의식은 아직 환동해교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동해교류를 위한 중앙정부와 강원도민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경제·기술·인적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계획의 내용

① 환동해교류권에 대한 의식제고

환동해 주변지역간에 공유하는 장래의 비전과 환동해경제권의 필요성을 강원도민에게 홍보하고, 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SEEC)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하여, 환동해교류에 관한 정보제공에 주력한다. 그리고 환동해 포럼이나 환동해 강원도상(상)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환동해에 관한 도민의식을 높인다.

<표 IV-2> 환동해교류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 구 분 | 내 용 |
|------------------|---|
| 환동해권 태동에 대한 기반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교류권에 대한 강원도민의 의식과 중앙정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 環東海文化際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추진한다. · '환동해연구소'(가칭)를 설립하고 주변국 학자들과 경제, 환경, 문화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학자들의 공식적 협의회를 구성한다. · 환동해권에서 한국의 관문이 강원도가 되도록, 주변 연안국의 영사관을 유치하고, 각종 행정기능을 집적시키고, 물류기능을 강화한 국제도시를 육성한다. · 동서고속도로, 국제공항, 동서고속철도, 컨테이너국제항구의 건설계획이 조기착공되도록 노력하고, 속초에서 포항까지의 동해안고속도로를 추진한다. · 동해연안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다. |
| 카르텔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지방정부와 협력체를 구성하고, 국제운송체제를구축한다. |
| 환동해 관광·환경벨트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한다. · '환동해해양자원연구소'(가칭)를 설립한다. · 신농업의 도입과 편안한 전원을 조성한다. |
| 환동해 산업·정보벨트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동해연안국 두뇌집단과의 제휴를 추진한다. · 정보기반시스템을 정비하여 21C형 경제인을 양성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동해연안국의 자원을 수입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경제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② 환동해 경제권의 교류협력

환동해문화제(가칭) 등 각종 문화·스포츠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주변국의 강원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국제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주변국에 한국어 교사 등 인력을 파견한다. 그리고 환동해지역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주변국에의 투자를 촉진하고, 주변국과 민관합동의 박람회 개최하여 사업기회를 넓힌다. 또한 환동해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동해안 해양자원의 연구·관리와활용을 위해 동해 해양자원의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한다.

③ 환동해교류체제의 확립

‘환동해연구소’(가칭)에 주변국 학자를 초청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내 타도 학자와의 연구교류를 추진한다.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환동해 국가와의 연락협의회, 공동연구기구나 합동위원회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그리고 주변국가의 행정기관과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④ 교류거점으로서의 환동해 중핵도시의 정비

동해항, 속초항, 강릉공항을 정비하고, 환동해권에서 강원도가 한국의 관문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들 거점도시에 대하여는 도로의 정비와 역·공항·항만과의 접근성을 높인다. 그리고 환동해 연안국의 총영사관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정치·행정기능을 발휘하고, 무역·유통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공항, 항만 지역에 수출·수입품의 전시판매,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적 박람회장을 건설한다. 환동해 중핵도시에 대하여는 도시를 재정비하고 경제·문화기능이 강화된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높인다.

⑤ 환동해 거점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대규모의 거점도시, 항만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컨테이너국제항구의 조기건설을 추진한다. 그 뿐만 아니라 속초에서→강릉→동해→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고, 하남(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장하여 →동해안의 양양에 이르는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을 시급히 추진한다.

⑥ 자유무역지대의 건설

환동해 연안국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물·여객선의 공동운항, 국제적인 관민합작 무역회사 운영,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월드컵스키대회, 관광EXPO, 동계아시안경기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항공·해상운송을 시작하여 동해안에 임해산업기지와 자유무역지대(또는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이지역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되, 동해안의 공업단지를 환동해권 배후지역으로 육성한다. 강원도 동해안의 자유무역지

대는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지대, 중국의 두만강특구, 러시아의 광역블라디보스톡 자유경제지대와 선형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북의 포항, 경남의 울산, 부산과도 연결되는 광역자유무역지대의 건설에도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2. 환동해 경제권 대응전략 추진(카르텔)

(1) 현황과 과제

환동해 인접국가들은 아시아의 주요강국들(중국, 일본, 러시아)이다.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경제브릭'(환동해경제권)이다. 이들 환동해 주변국들은 '환동해경제권'에서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가 제시한 전략이 '환동해경제권 카르텔' 전략이다.

(2) 계획의 내용

① 강원도의 카르텔 구상

카르텔 구상의 개념은 '환동해경제권 주도를 향한 강원도의 역할'(KARTELL: Kangwon-do's Active Role Towards East-sea rim's Local Leader)에 있다. 그리고 단계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 확대'

2단계: 환동해권 4개지역 지방정부간의 '다자간협력체 구성'(상설협의체 구성)

3단계: 환동해권 관광·무역의 '국제운송네트워크 구축'

Tri-Port System(육운+해운+항공)

② 카르텔 구상의 실적

1단계로 환동해권의 주요 거점 지방정부와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지방정부는 한국의 강원도를 포함하여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이다. 1995년말까지 4건의 사업, 42회 1,258명이 강원도를 방문한 바 있다.

2단계로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 정상회담을 주도하여 동북아 최초의 지방단위 상설국제협력기구로 발전시킨 바 있다. 후속조치로 4개국 공동협력사업의 정례화 추진, 특산품전시회, 국제관광루트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3단계로 환동해권 관광·무역·문화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이며, 속초(한국)-포시에트(러시아)-훈춘(중국)의 3국간 정기해운항로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강원도내 공항 및 항구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관·이민·검역국의 설치 및 화물·여객선의 운항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3. 환동해 관광·환경벨트 조성

(1) 현황과 과제

동해가 동양의 지중해가 되기 위하여는 관련 5개국(일본, 러시아, 중국, 남·북한)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지방들이 대체로 개발이 늦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계획의 내용

① 환경·자원의 보존과 관광자원화

동해연안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환경보존, 자원공동 이용 체제를 정비한다. 주변국과 해양공동탐사,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핵투기방지 등 주제를 설정하여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해양박물관, 레저타운을 건설하고, 주변국과 공동으로 국제 Eco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국내의 속초-설악권, 강릉-대관령권, 삼척-태백권으로 해양과 고원 산악관광지와 주변도시를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국제관광코스와 연계한다.

② 환동해 해양자원연구소의 설립

동해연안의 해양자원을 연구·개발·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밖에 새로운 농업분야와 기술을 연구하는 국제 농업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식량문제·환경문제를 연구한다.

③ 신농업의 도입과 안락한 전원의 조성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을 주도할 전문경영체를 육성한다. 농업의 시장개방에 맞서 고부가가치,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이의 가공기술을 고도화한다. 농어촌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민박시설의 확충, 관광 주말농장을 조성한다.

4. 환동해 산업·정보벨트 조성

(1) 현황과 과제

환동해시대에는 산업, 기술, 학술, 문화에 관해 국내외의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하며,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국내의 수도권, 동해 연안국가,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정보교류를 촉진해야한다. 이를 통해 동해 연안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국토개발의 축을 구성한다.

(2) 계획의 내용

① 정보수집기능의 강화

해외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도권의 정보수집기능을 활용하여 해외

두뇌집단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환동해연구소(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

② 정보기반 시스템의 정비

ISDN(종합정보통신망) 등의 고속정보통신망을 정비하고 각종 학습, 재해, 복지, 의료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한다. 그외에 첨단 기술, 산업정보, 국내외 농산물시장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③ 환동해시대에 걸맞는 산업의 추진

동해 연안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연구개발형 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동해에 면해 있는 각국 인접지역의 자원을 수입하여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밖에 동해지역의 산업, 기술진흥을 위해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V. 결 론

이 논문은 강원도의 전반적 국제화 정책과 그중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전략제시를 목적으로하였다. 환동해권 지역은 각국 모두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지연되어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교류 및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잠재력과 접근성을 볼 때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환동해 인접지역들은 자기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자는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지만,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도 같다.

어떻든 이들 환동해지역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가까운 이웃이 되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자 자기지역이 풍요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큰것을 찾기는 힘들것 같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작은 것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작은 것들을 귀중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멀지 않아서 어느새 큰것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환동해카르텔 구상과, 환동해 거점도시의 육성, 그리고 환동해 관광·환경벨트의 조성 등은 향후 각국의 인접지역들과의 교류와 협력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용한 바다’ 동해(일본해)가 ‘아시아의 지중해’로 부상되어, 이지역이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 될 수 있도록 협력 또 협력을 바란다.

參 考 文 獻

- 강원개발연구원, 「21세기 강원의 미래상」, 1996. 5.
- 강원도, 「강원의 비전21」, 1996. 9.
-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1994, 1995.
- , 국제통상협력실, 내부자료.
- , 관광과, 내부자료.
- , 농산물유통과, 내부자료.
- , 상공과, 내부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동북아경제권에 대응한 국토개발의 과제」, 1995. 2.
- , 「환동해경제권 대응전략 구상」, 1995. 2.
- 부산시, 「국제통상포럼」, 1995. 6.
- 한국 국제통상학회, 「세계화시대의 통상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1996. 6.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강원무역동향」, 1996. 4.